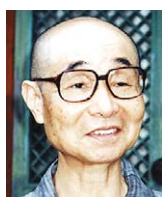


지유 스님 '수심결' 법문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사진)의 특별한 법석이 4일간 마련된다.

부산 범어사는 10월 21일부터 4일간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침계루에서 조실 지유 스님의 <수심결> 특별 법문을 연다.

참가비는 5만원이고, 범어사 종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051)508-3112



박지원 기자

“세계속 한국불교 터전 만들어요”

홍법사 10월 13일 대웅보전 상량식

불심의 도시 부산에 국제종합불교센터가 들어선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13일 오전 11시 건립 중인 대웅보전 상량식을 갖고, 국제종합불교센터로 도약할 기쁨을 마련했다.

홍법사가 현재 건립 중인 국제종합불교센터 대웅보전은 지난 6월 27일 기공식을 갖고 연건평 1980㎡, 3층 규모의 대불을 포함해 총 7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웅보전 내부에는 기도와 범회만을 위한 기존 법당의 개념을 넘어 제사와 참선, 문화 기능을 두루 갖출게 된다. 또 요사채는 침대와 샤워시설을 현대식으로 완벽히 호텔에 못지않은 편안한 속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량식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열린종교 방영식 목사 및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법어에

서 “홍법사가 장차 국제종합불교센터라는 큰 뜻을 이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열린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정우 스님은 홍법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금강저를 심산 스님에게 선물했다.

상량식이 끝난 후 대불이 모셔질 대웅보전 옥상을 외부인에게 처음 개방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홍법사는 10월 13일 대웅보전 상량식을 열고 국제종합불교센터로 한걸음 다가갔다.



인터뷰-심산 스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제불교센터로서의 위용을 갖추는 그날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종합불교센터로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될 홍법사의 새 대웅보

전은 일반적인 사찰 양식이 아닌 미래에서 온 듯한 커다란 우주선을 닮아있다.

심산 스님(사진)은 “원형으로 설계해 동, 서, 남, 북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모든 곳으로 두루 원만하길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굳이 옛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양식으로 가장 우수한 건물을 지어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 “오늘은 신도님들의 신심·원력이 봉우리처럼 땀을 맺는 날이다. 완성이 아닌 시작에서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며 포교에 관한 뜻을 밝혔다.



박지원 기자

정토사 동문 함께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



정토사는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12일 개최했다.

울산 정토사와 정토사 불교대학 졸업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졌다. 정토사(주지 덕진)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동천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정토사 불교대학 1기부터 24기 주·야간 수료생을 각 50명씩 보시팀, 인육팀, 선전팀, 지혜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눠 축구·피구·족구·줄넘기·홀라후프·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지 덕진 스님은 “불교도, 체육도 한마음이 돼야 한다.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보살행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정토사 창건 20주년을 맞아 불자들이 한층 더 신심을 낼 수 있는 시민선원을 개원했으니 단합된 한마음으로 불법홍포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정토사 창건 2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산보다 높은 불심으로...

김해·천안·원주·포항불교산악회 연합법회



10월 12일 김해 청암사에서 김해·천안·원주·포항불교산악회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천안, 원주, 포항불교산악회가 10월 12일 오후 3시 김해 청암사(주지 상택) 자양전에서 김해산악회 주최로 500여 명의 산악인들이 모인 가운데 연합법회를 가졌다. 김해 사암연합회장 성남 스님의 주례로 “인연은 소중한 여기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지지를 받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인연으로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해산악회 천상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부처님법을 널리 알리는 큰 뜻을 지닌 만민의 법회인 만큼 진정한 불자산악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집중수행으로 화두타 파!

벽송사 11월 1~8일 재가자 선회

한국 간화선의 근본도량 벽송사에서 재가불자를 위한 간화선 수행의 이론과 실천 향상과정인 벽송선회를 최초로 연다.

조계종 합양 벽송사선원장 월암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지리산 벽송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가불자 벽송선회는 10월 초 중장불사를 계기로 모든 재가불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수행처로 거듭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가 수행자들이 선원에서 실천과 간화선 강의로 집중수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입재식에는 덕송총림 수좌 설정 스님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간화선의 역사’ ‘정견의 확립’ ‘돈오경상’ ‘간화선 향상일로’ ‘화두와 실천’ ‘간화선과 일상생활’ ‘간화선 수행의 요체’ ‘간화선과 중생회향’ ‘선과 노동’ ‘동정일여의 수행’ ‘한국 선사상’ 등을 강의하고 모든 강의는 선원장 월암 스님이 맡는다.

선원장 월암 스님은 “벽송사는 만인의 수행귀의처로 거듭나기 위해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처음 열기로 했다”며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은 불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고진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참가비는 3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0월 10~25일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055)962-5661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

전방위 포교, 만능 엔터테이너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중략)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발원문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를 열어줄까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힘이 나시나요? 불기 2552년 10월 15일 오심 스님의 아침을 여는 음악 상쾌한 아침, 신나는 노래로 열어볼까요? 바스코가 부릅니다. 담벼락 세상이!”

매일 아침 8시 20분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편안한 스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은 적극적인 포교를 지향한다. 2002년 부산불교방

오심 스님의 남다른 포교 마인드는 통도사 교무국장, 총무원 포교국장 등을 거쳐 월봉사 주지로 취임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현재 월봉사는 어린이법회, 월봉사 유치원, 울산과학대 불교학사회, 교양대학 8기 등 19개 실행단체가 활동 중인 살아 숨쉬는 절이다.

최근에는 인접한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잦아지고 있고, 타지의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오기도 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와 보다 체계적인 월봉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에 고심이다.

스님은 “월봉



사찰 이름에 브랜드 네이밍 도입...포교 다각화

송에서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을 2년간 진행하고, 2008년 초에는 6개월간 불교TV에서도 출연한 만능엔터테이너 스님이다. 스님은 “신도들이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리기 보단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포교를 해야 한다. 포교는 아무리해도 모자람이 없다”며 법회 뿐 아니라 TV, 라디오, 지역 축제 등 불자들을 만나는 다양한 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사는 신라 경순왕 때 일산 해수 육장에서 산을 바라보니 달이 휘영청 밝아 있기에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앞으로 큰 사찰이 될 것이라 예언을 한 곳”이라며 “고풍스러운 법당이 전통 사찰의 감흥을 간직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스님의 열린 포교 마인드는 월봉사 앞에 불의 수석어에서 한 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달빛 고운 절’ 월봉사. 사찰이름에도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게 오심 스님의 포교전략이다. ‘언젠가 통해 근방의 어느 사찰에서 ‘세계화기연꽃모음 절, 00사’라는 이름을 보고 감성을 자극해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울산의 수많은 사찰 중에 차별화할 수 있는 월봉사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다도회의 이름도 ‘달빛 다도회’다.

오심 스님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의 원장으로 지역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선 포교를 하고 있다. ‘요양원에 다른 형태의 포교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그림 한 장, 책 한 권 갖다놔도 포교 효과 크죠.’ 이곳에 일하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역시 스님께는 포교 대상이다.

근엄한 주지 스님이지만 때로는 신도들을 위해 나혼자의 ‘공’을 멋지게 불러줄 줄 알고,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자격증으로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게 어린이 캠프의 사회를 보는 오심 스님의 포교는 ‘열정’이다.

박지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가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홍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중심,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월드컵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었어, 어머니는 아들 형제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더부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석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천룡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문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행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행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행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영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단주 또는 합정주 택!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

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 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인 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 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 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며, 병든 중생은 건강 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인 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 032-12-193445 이상하